



“새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2022년의 첫 일요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용인에서 온 신자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소원의 탑에 새해 소망을 적은 메모지를 달고 있다. 연합뉴스/김도훈기자

삼성, 새해 시설투자에 속도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박차

평택 3공장 완공·4공장 본격 착공
美 테일러시 공장 착공 등도 예정

삼성전자가 새해 반도체 신공장 착공 및 준공 등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평택캠퍼스의 세 번째 반도체 생산 라인 'P3' 공장 완공과 네 번째 생산라인인 'P4' 착공, 미국 파운드리 2공장 착공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초격차'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선 것이다. 2월 업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착공한 삼성전자 평택 3라인(P3)은 최근 건물 골조 공사를 거의 마쳤다. P3라인의 완공 예정일은 애초 2023년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5월 삼성전자는 완공 시기를 2022년 하반기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장비 반입과 시운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2023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3라인은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규모만 축구장 면적의 2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는 D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P4라인 건설을 위한 부지 정리 작업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2024년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는 "P4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가 어렵고 아직 정해진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투자가 확정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20조원 규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은 2024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한다. 외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우선 공장 건설을 위한 인프라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테일러시 카운티는 최근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부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2.4마일(약 4km) 길이의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테일러시 카운티는 최근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부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2.4마일(약 4km) 길이의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테일러시 카운티는 최근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부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2.4마일(약 4km) 길이의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잡아라” 공약 경쟁 치열

李·尹 모두 250만호 공급 제시
방법론은 '공공'-'민간' 주도 주장
규제 시간도 '강화'-'완화'에 무게
인철수·심상정 후보도 "공급 확대"
전문가 "세부 이행방안 부족" 지적

두 후보가 공히 250만호 공급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일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최근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신규 주택 규모는 250만호로 동일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방향성이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한다.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에도 나섰다. 용산공원과 김포공항, 성남서울공항, 수원비행장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 목표다. 5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사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추 보유세 감등을 차감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 투기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뺐던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이행 방안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사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추 보유세 감등을 차감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 투기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뺐던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이행 방안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정권교체를 노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공급,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에 각각 방점을 찍어 각론에 선 시각차가 드러난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대립된다.

이 후보는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 주도로는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을 기본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 후보의 기본 생각은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고 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생긴다

보건복지부
건강관리팀
032-890-8700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연합회

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안전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2차 접종 14일 후부터 180일까지 99일까지 계도기간·10일부터 적용 추가접종 미완료시 영화관 등 이용 불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최소선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

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나 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동' 소리가 나온다. 당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돌과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김은미기자 kym@jeonmae.co.kr

SAMSUNG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꿈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단신브리핑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 10억원 확보

대구시는 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폭염 디지털 트윈 개발사업'이 선정돼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폭염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폭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폭염디지털 트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 디지털 트윈'이란 첨단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동일한 환경의 지형, 건물, 일조권, 교통상황, 기상정보 등을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구현해 폭염 취약지 파악, 우선 대응 지역 선정 등 실시간 자료기반의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형 재난예방 및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는 폭염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경감을 목표로 대구지역의 폭염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유하고 폭염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 타입을 개발해 대구시 재난안전 플랫폼(안산하이스)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 완료시 '초단기 폭염재난 예측'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최소화 및 폭염피해 예방·경감 등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신동대기자 shindd@jeonmae.co.kr

2021 미래교육지구 우수기관 선정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미래형 교육지구 협력지구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시청-교육청이 협력해 공동설립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방과후 운영, 진로체험터 활성화, 실무분과 운영, 마을배움터를 시범 운영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세종시만의 특화된 방과후 모델로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더 자람터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올해는 더 자람터 마을방과후 확대, 마을배움터 신설지역 발굴, 읍면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관내 체험터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희 시장은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u@jeonmae.co.kr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31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 수원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상위계획 등을 검토 중이며 새롭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했다. '청소원들이 꿈꾸는 미래수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는 지역 거주 청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 그림, 사진, 동영상 등으로 미래 수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1일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코로너-19 이후 주춤했던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활동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승강기 등 곳곳에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끔 계획이다. 홍보물에 새겨진 쿠팡(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편하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시의 공과구조, 자정해야 할 바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둔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이자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수원/ 박선식기자 spark@jeonmae.co.kr

올해 국비 9164억 반영...보성-임성리 구간 내년 개통 광주 송정~보성~순천 잇는 경전선 철도사업 추진

전남도는 올해 9164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수도권-영남권과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가속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7800억원보다 16.1% 늘어나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6050억원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보성-임성리 간 철도사업은 246억원, 진주-광양 간 경전선 철도사업은 468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개통한다. 보성-순천 구간도 2025년까지 완공하면 보성-임성리 철도와 연결돼 목포~부산 전 구간이 이어진다.

특히 광주 송정~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철도사업에도 24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선 고속철도망과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3개 노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현재 국도교

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익산~여수를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89.2km에 3조 357억원을 들여 기존 전라선의 골짜기 구간을 신설 개량한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당초 2시간 40분대에서 34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1조5255억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을 시작으로 나주 남평과 혁신도시, 나주역을 잇는 광주~전남 생생노선

이다. 달빛내륙철도는 198.8km구간에 4조515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를 잇는 동서횡단형 철도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연결을 위한 남북방향 철도뿐만 아니라 동서를 잇는 철도망도 열리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으로 호남권 주민의 편의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 권상용기자 ks@jeonmae.co.kr



호랑이의 해를 맞아... '어서와 평범' 2일 코엑스 앞에서 시민들이 일상회복의 새해를 기원하는 초대형 흑호 미디어아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김영민

"대중교통, 머신 러닝으로 효율적 운영 가능"

기상계절 등에 큰 영향을 받는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요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 '머신 러닝'을 도입하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도 광역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예측도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시대'를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우선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 광역버스 이용실적과 기상청 자료를 비교해 기온, 대기, 계절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수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상 상황 발생 시

평시 대비 평균 14.4% 이용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0명당 일평균 이용수요가 17.6인에서 한파 경보 발령 시 12.6인으로 28.7% 감소했다. 이외 호우대설대령 주위에 이상 발령 시는 평균 14.5%, 폭염 경보 발생 시 3.6%, 대기특보 발령 시는 1.4% 등 각각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겨울, 요일별로는 주말에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크게 줄었다.

여름(6~8월)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인구 1000명당 일평균 18.4인 반면, 겨울(12~2월)은 16.6인으로 나타났다. 주중 일평균 이용수요 19.6인 대비 주말 일평균 이용수요는 12.6인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코로너-19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중 평균이용수요는 2019년 50만명에서 2020년 41만명, 2021년(1~5월) 42만명으로 평균 22.7% 감소했다. 주말 평균이용수요는 2019년 35만명에서 2020년 22만명, 2021년 24만명으로 36.6% 감소했다. 특히 코로너-19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기상악화, 코로너-19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급변할 경우 서비스 질 저하, 버스운행 경영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수요를 사전 예측해 탄력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이달 전면 시행

기존 혜택에 대중교통 환승비도 지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카드 소유자가 수도권 전철 및 타 시도 버스와 충남 버스 간 시차 환급 방식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물론 기존 알뜰교통카드 기능인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 만큼 카드 마일리지도 받는 것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저비용, 확장성, 효율성, 이용자 통제제공

들이 특징이다. 또 지자체 간 환승 정책을 시행하려면 행정적 절차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알뜰교통카드는 5000만원으로 환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후 다른 교통수단에도 적용이 쉽고, 교통카드 빅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해 새로운 교통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발급 가능하며 신한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3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말 발표만 만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교통카드에 버스비 무료 기능을 탑재해 오는 4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민 건설교통국장은 "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수도권 전철 및 타 시도 버스와의 환승이 가능해졌다"며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되면 잠재된 지역경제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성남시, 3억3000만원 투입 6개 평생학습 지원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는 올해 3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6개의 평생학습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습동아리,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 공동프로그램, 만주시민교육, 성인문화교육,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이다.

이들 사업은 수행 기관·단체를 내달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 연간 100만~1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동아리 자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동아리에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등에 드는 경비를 최대 100만원 보조한다. 우수평생학습은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

양, 시민참여 분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단체·기관에 최대 800만원의 사업비를 준다. 행복학습센터 공동프로그램은 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74곳 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2곳 이상의 행복학습센터가 하나의 팀을 꾸려 공동 운영하는 사업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만주시민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월한 단체·기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성인문화교육은 학원가에 정규 장기교육의 기회를 놓친 비전문직자에게 한글 교육을 하는 단체·기관에 강사비, 교재비 등을 최대 600만원 보조한다. 이일경기자 leey@jeonmae.co.kr

New Year Greeting and Council Information. Titl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ntent: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원구의회가 되겠습니다. List of Council Members: Mayor An Bok-dong, Deputy Mayor Shin Dong-won, etc.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등 지원 대폭 늘린다



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2022년 새해는 경기도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또 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8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시·군 담당 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3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농민기본소득 지원 17개 시·군으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 확대
인권모니터단 인원 1000명 규모로
법 위반 기업 기업지원 제한 시행

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종장년 수다 살롱, 식생활 개선다이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산업·경제, 농업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새해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장,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오는 4월부터 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도가 인정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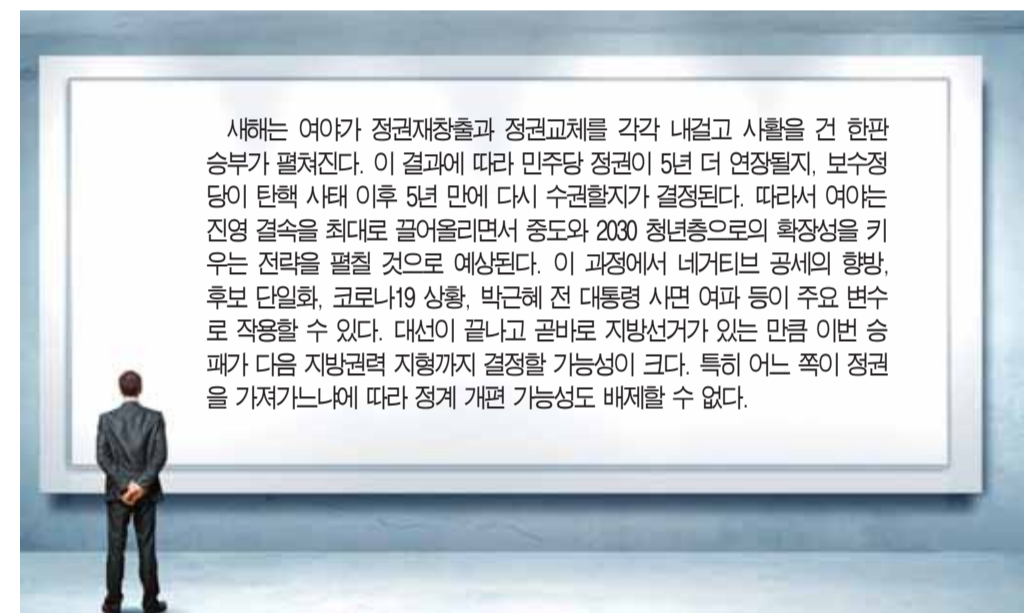
정권재창출 vs 정권교체...여야 승패따라 권력지형 '요동'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해도 가평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운악산 설경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가평군
gapyeong county



새해는 여야가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각각 내걸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이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연장될지, 보수정당이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다시 수권할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여야는 진영 결속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중도와 2030 청년층으로의 확장성을 키우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의 한창, 후보 단일화, 코로나19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이번 승패가 다음 지방권력 지형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느 쪽이 정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 정국 전망 떠오른 선거의 해

●李-尹 양강 집권...중도·청년 구애 승자는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4자 구도로 확정됐지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로 공고해졌다.

하지만 약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함께 이·윤 후보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형국이다.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되레 증가하는 이례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 야권에 비교적 유리함에도 윤 후보가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지 후보 결정을 망설이는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네거티브 공방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을 겨냥,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홍보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 실정론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윤 후보는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교체 여론을 모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파장...후보 단일화·차 사면도 변수

이번 대선에는 네거티브 공방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을 비롯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근거 부족한 네거티브 공세는 막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들 두 후보가 박빙 구도로 갈수록 진영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이슈가 대두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 진영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정의당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물결을 장담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당 안팎에서 술술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안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보수 진영이 분열하는 소재로 작용할지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및 여야의 코로나 공약 경쟁도 눈여겨 볼만한 변수다.

●승패 따라 권력지형 비관다...정계개편 격랑 속으로

이번 대선 이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친이재명계의 구심력이 강화되면서 친문재인계가 재편되는 등 민주당의 주류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대선 승리가 6·1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되며 민주당이 지방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19대 대선 다음 해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시·도지사 17곳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다시 한번 장악하면 서 내부적으로는 장기 집권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면 잠재한 보수 진영은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을 해야 하는 상

황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의석 구조상 다음 총선까지 2년간 여소야대 상황이기에 범보수 통합, 민주당과의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회권력 열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지방권력을 우선적인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면 민주당도 많이 변할 것"(윤 후보)이라며 대선 승리 시 정계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합치·탕평 내각, 나아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이재명-윤석열 앞치락 뒤치락 '백중지세' 늘어나는 부동층에 중도·2030 표심 관건 네거티브 총공세속 단일화·코로나 변수로 대선 결과 따라 지방선거도 승패 갈릴듯

주택시장 상승세 ‘숨고르기’ ... “선거가 최대 변수”

“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최근 금융당국의 초강력 대출 규제 등에 따른 거래 급감으로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국회·민간 연구기관들은 일제히 제언적이거나 내년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새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가운데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는 집값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예상된다.

”

● 새해 집값 2~5% 상승 전망...선거·대출 규제 변수

국토연구원은 새해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인 수도권 9.4%, 지방 6.1%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 정부가 재임 기간에 집값을 하락 안정시켰다는 목표와는 배치된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전국 5.0% 상승), 우리금융경영연구소(3.7% 상승), 주택산업연구원(2.5% 상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 상승)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수치는 다르지만 모두 새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다. 주산연은 자체 주택 수급량 산정 방식을 통해 현 정부 5년 동안 서울은 14만가구, 경기·인천은 9만가구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어난 국가 예산에 더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새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신축통합기획 등이 서울 집값을 자극할 불씨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반면 초강력 대출 규제 기조와 금리 인상 압박, 보유세 부담 급증은 집값 상승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해 치러질 대선과 지선이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초대형 변수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방식과 세금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된다”며 “특히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최종 확정되면 매물 출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시장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

전세 시장은 새해에도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전국 6.5% 상승), 주택산업연구원(3.5% 상승), 건설정책연구원(4.0% 상승)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모두 전세값 상승을 예상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나이가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사회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구분	내용	시행시기
세제	고가 상가경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1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대출	등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1월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제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1월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2월	
4월		
7월		
연중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연중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연중	통일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차녀 이상 확대	연중
	주) 상기 항목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함	

자료: 부동산R114

공급 부족속 대출 규제 금리·보유세 부담 대신·지방선거, 규제 완화·개발 호재 작용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 불안 예측

특히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전세 계약이 오는 7월 말 이후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은 전·월세 가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했던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간 2년이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며 임대차 시장에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수도권(14만2761가구)과 지방(11만8835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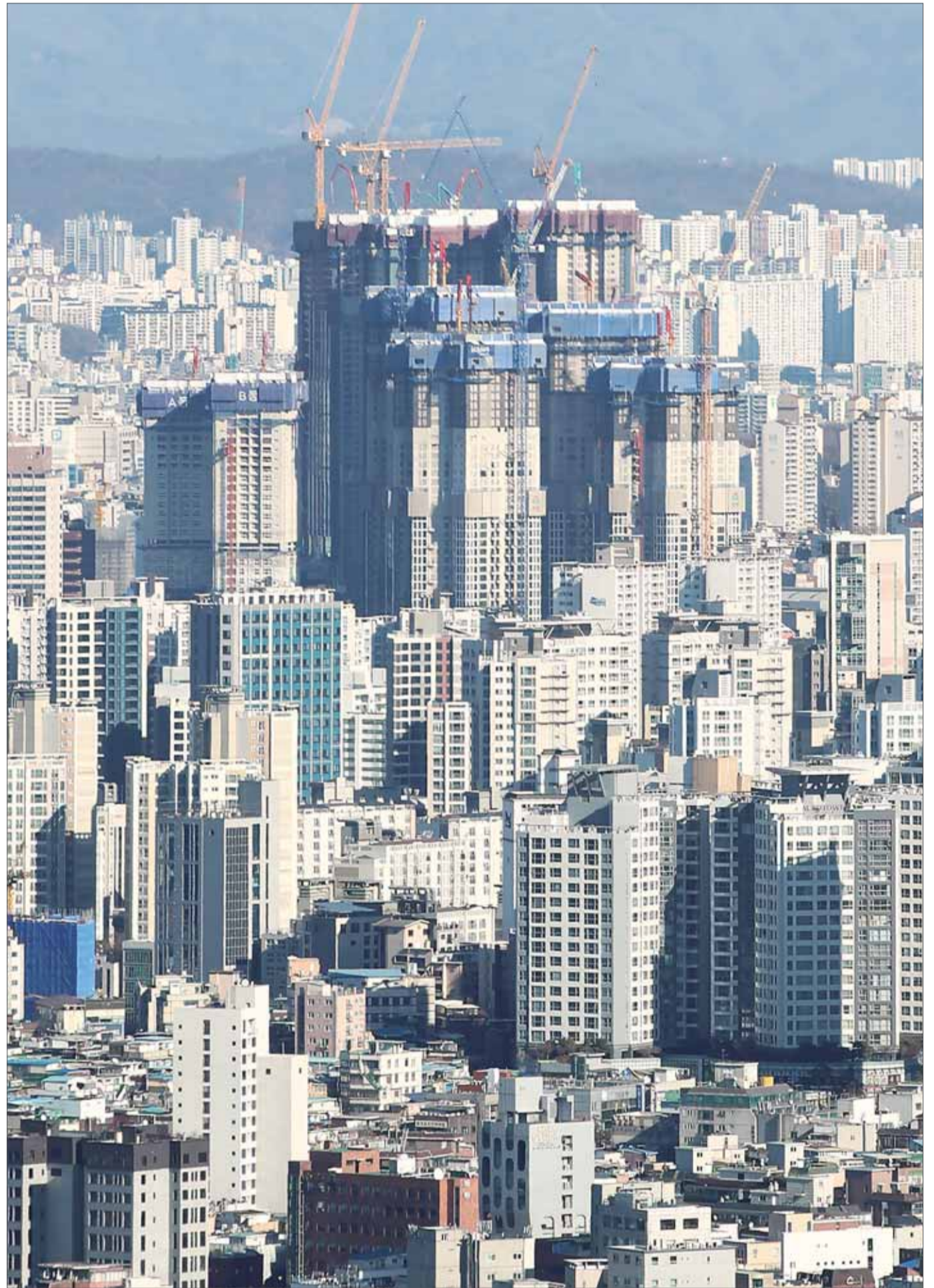
구) 모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22.0%씩 늘어난다.

새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적으로 올해 대비 10.3% 증가한 31만4308가구다. 지난해보다 수도권(16만6887가구)은 1.2%, 지방(14만7406가구)은 22.6% 늘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직방 기준 1만8148가구, 부동산R114 기준 2만5200가구로 지난해 대비 각각 14.0%, 38.8% 줄어든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지에서 입주 물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물량부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하반기에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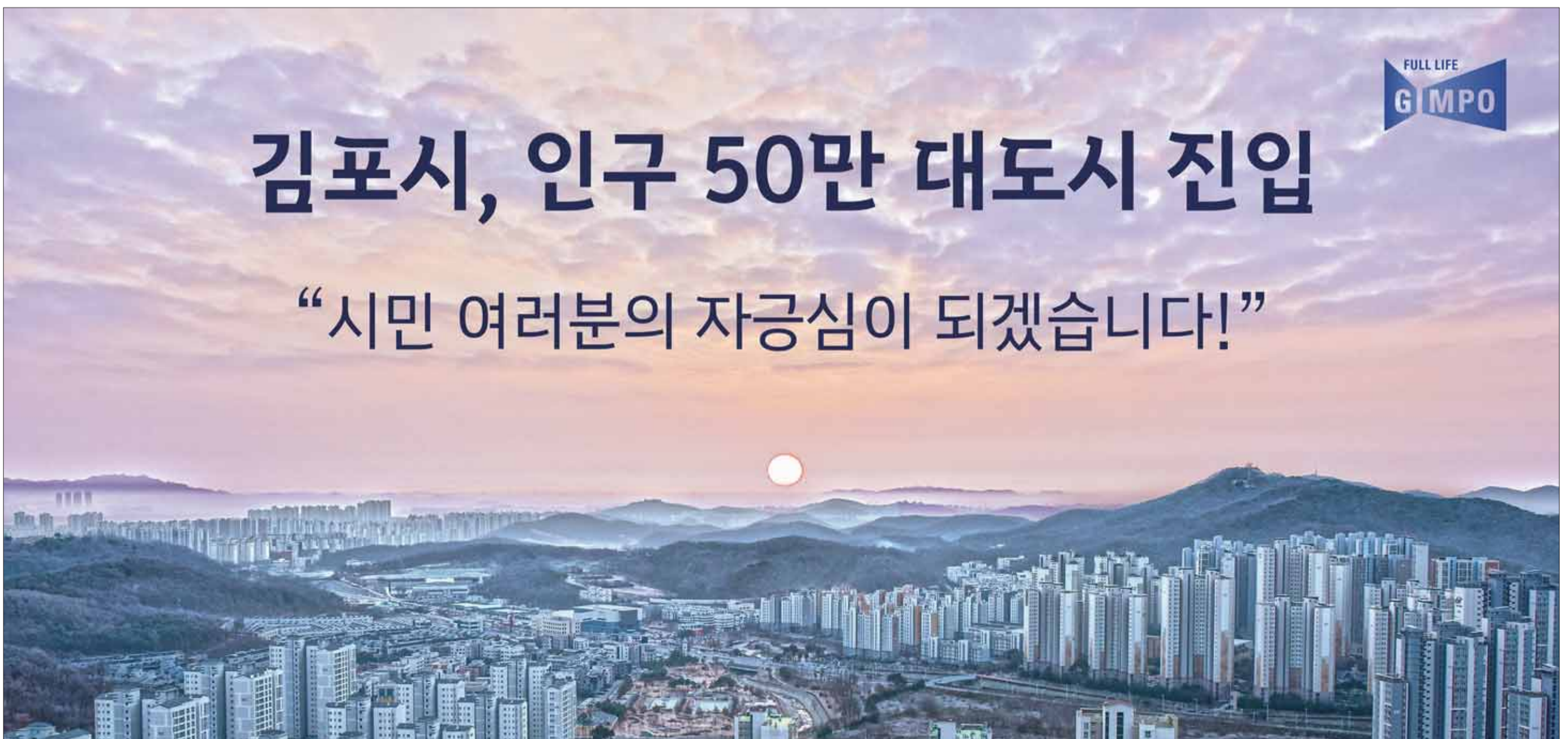
새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가운데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는 집값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시민 여러분의 자긍심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 게시

‘관악중부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행운동 ‘관악중부시장(관악로 222 외 26필지)’을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인조직화, 개별 점포 컨설팅 및 각종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며 기틀을 견고히 다져왔다. 그 결과 앞서 지난 20일 난곡 골목형상점가를 제2호로 지정한 데 이어 ‘관악중부시장’을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관악중부시장은 기존 전통시장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은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돼 매출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이동진 구청장 “달라지는 제도 통해 주민 일상 편리하고 윤택해질 기대”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도봉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편의와 관련

간소화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문화공간이 추가 조성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소리반사 효과만으로 공연하는 대규모 친환경 야외 공연시설 ‘평화홀터라’가 문을 연다. 전문 예술인의 정기공연을 비롯, 자연과 함께 문화행사와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옥의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 특성화 ‘한옥도서관’이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를 다양화한다.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이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기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한다. 신입생들의 필수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추가 도입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빨래를 무료로 수거하여 세탁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아동 정책을 강화

한다.

균형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도봉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해 기구필라테스, 서킷핏, GX 실 등이 마련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이 2월에 개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코로나19 임시소독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 밖에도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기존연립 선정기준에 변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등 다양한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

서정원 기자 seo@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가로수길 은행나무에 ‘그래피티 니팅’ 입혀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신사동 1일부터 신사동 가로수길 680m 구간의 은행나무에 뜨개옷을 입힌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 작품을 전시 중이다.

“그래피티 니팅”은 형형색색의 털실로 된 덮개를 이용한 친환경 거리예술이다. 신사동 주민센터는 가로수길을 2017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와 콘셉트로 전시해왔다. 올해는 가로수길 정비사업을 기념해 가로수길의 ‘재탄생’을 주제로 124구루에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신사동 주민과 학생 등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네이버 밴드에서 참여자들이 작품을 공유하며 각자의 집에서 직접 손뜨개 작업을 했다.

청소년 축구교실 참가자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청소년 기초체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구 청소년 축구교실’ 신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저학년 축구교실과 어린이 축구교실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각 초등학교 1-3학년 저학년과 4-6학년 고학년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저학년반 20명, 어린이반 20명으로 총 40명이며, 평소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영등포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생활체육교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1-2월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감습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감습은 2월 중 참여자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은평구, 2021년 구정 10대 뉴스 선정

‘스콜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1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14일 동안 ‘은평구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스콜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민 2409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 응답자의 10.1%가 ‘스콜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을 꼽았으며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 예산’이 9.4%로 2위

를 차지했다.

또 ‘은평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은평의 얼굴, 홍보대상 위촉’ 8.6%, ‘은평이르신 일자리센터 개관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8.0%, ‘임상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7.1%,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5.7%, ‘은평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5.1%, ‘광

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과 ‘학생 참여 프로젝트 내 그린 공간학교 조성’이 각각 4.7%를 차지했다.

온라인 투표 참여자는 여성이 62.8%로 남성 37.2%보다 25.6%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26.7%, 20대 17.0%, 50대 11.6%, 60대 이상 8.2%, 10대 2.0% 순이었다.

임형진 기자 limhc@jeonmae.co.kr

성동구, 환경부 폐기물 처리평가 ‘전국 최우수구’ 선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환경부가 주관한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구의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과 성동구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선별 시스템 운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부터 일반 주택가로 확대, 17개 전 동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동 프리미 재활용 정거장’은 지난해 55%에 불과했던 재활용 선별률을 72%(‘21. 9월말 기준)로 급상승시켰다.

102개의 거점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돕는 정거장은 재활용품의 ‘배출-수거-처리 체계’ 3단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배출단계부터 8개 품목 분리 및 이를 수집·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매주 일정 시간 거점 장소에서 자원관리사들이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동시에 품목별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활용선별장인 자원회수센터에서는 별도의 품목별 보관 장소를 설치해 다른 수거품이 한 데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금호2-3기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에서 자원관리사들과 작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구제공>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시스템의 효율적인 속도 조절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의 인력 재배치도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분야별 높은 효율적 전략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해 폐기물처리비는 절감되고 판매수익금은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21. 9월말 기준)총 6억5천5백만 원의 수익 성과를 냈다.

구는 정거장 운영과 함께 종이팩과 아이스팩 수거함을 전 동에 설치해 주민참여를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해 나가

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페트병 라벨 사용 등을 촉구하며 ESG행정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구로구, 구청·보건소 조직개편 단행

스마트구로 도약·일상회복 지원 등 최우선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상)는 스마트구로로 도약하고 주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등 구정 최우선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과 보건소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구청은 1일 6국, 1실 1담당관 1반, 34과 150팀)으로, 보건소는 17일 5과) 21팀으로 조직체제가 조정된다.

구는 스마트 기술과 휴식 복지 공간을 함께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로 성장하고자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발전기획단에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등 총 3개 과를 마련했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최첨단 기술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혁신국을 신설한다. 이어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던 홍보전산과를 스마트혁신

국으로 옮긴다. 홍보전산과는 각종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며 스마트도시로서 더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안전과에 중대재해관리팀도 새로 만든다.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일상회복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보건소 체제도 정비한다.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일상회복지원팀도 새로 설치한다. 감염병대응팀, 방역관리팀에서 명칭을 변경한 감염병예방팀, 동물복지팀을 지역보건과에서 질병관리과로 이전한다.

기존 지역보건과는 건강증진과로, 산하에 있는 영유아보육팀은 모자보건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건강증진팀과 예방접종팀을 신설한다.

서정원 기자 seo@jeonmae.co.kr

양천구, 조직운영 우수자치단체 기관표창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1년 조직운영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돼 기관표창(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우수 사례 창출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분석·진단,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17개 기관이 최종 선발됐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양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는 미래 30년을 대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자 행정안전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게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시행했고, 이러한 성과는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의 이번 조직운영 우수자치단체 선정은 민선 7기 시작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행복한 미래 새로운주각

중랑구

희망찬 새해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인정 넘치는 중랑에서 소중한 꿈과 행복 가꾸시길 기원합니다. 중랑주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정지원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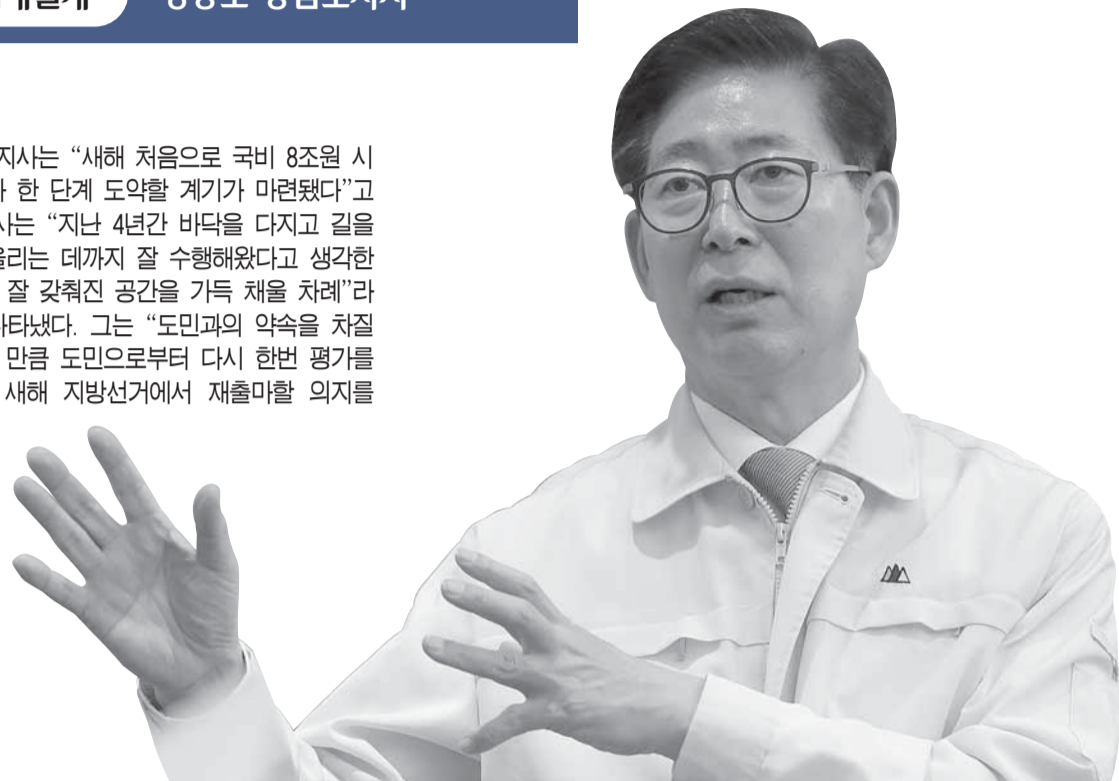
재정건설 위원회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새해 국비예산 8조 시대 한 단계 도약 계기 마련”

2022년 새해설계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새해 처음으로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어 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난 4년간 바닥을 다지고 길을 내고 건물들을 올리는 데까지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잘 갖춰진 공간을 가득 채울 차례”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수행해온 만큼 도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며 새해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할 의지를 내비쳤다.



기관 이전을 위해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해 그런 의사를 타진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에 쓸 예정이다.



● 새해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하고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 국비 예산이 8조3천억원에 달해 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 소외지역인 태안에서 서산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비 3억원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공주 탄전지구 다목적 농촌융복합발전 기본 조사비 3억원과 서천 브라운랜드 아생동물 보육치유시설 9억원, 논산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2억원 등 도내 균형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됐다.

● 아쉬운 점이라면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보부 등을 직접 찾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충남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

● 석탄발전 폐쇄 일정이 예정대로 되고 있는 지, 지역 경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애초 예정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다. 도내 석탄 화력발전 30기 가운데 설치한 지 30년이 됐거나 그 이상 지난 17기를 수명 연장 없이 2035

● 새해 도정 운영 방침은

지난 4년간 바닥을 다지고 길을 내고 건물들을 올리는 데까지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 잘 갖춰진 공간을 가득 채울 차례라고 본다. 민선 7기의 도정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 과정을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민선 8기 충남 도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가로림만 해양정원·해미국제성지 명소화 등 주요 현안 반영
석탄화력 2045년 완전히 폐쇄... 민선 8기 순항 준비 만전
4년 도정 성과 도민에 평가받겠다... 재출마 의사 표명



년 폐쇄하고 지난 7월 가동한 신서천화력발전은 수명 단축을 통해 나머지 12기와 함께 2045년 폐쇄 또는 중간토목 조치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정의로운 전원기읍 설치와 운용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사업,

●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지사직에 재출마하

나 임기 동안 4선 국회의원 인맥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충남도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고 자부한다.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수행해온 만큼 도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행정수도 완성 공론장 기대”

2022년 새해설계 이준희 세종시장

이준희 세종시장은 “3월 대통령 선거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이 필요한 만큼 시장 추이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최근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잇달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들 정당 대선 후보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월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워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정수도가 개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는 만큼 대선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인대 전국 최고 상송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나

세종시 집값 상승은 지난 2020년 7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4개월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각종 규제 조치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대선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
시민 주거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집값 대응해 나갈 것
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확대 계획 차질없이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이 필요한 만큼 시장 추이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대책은
국무조정실,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공무원

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협의해오던 중 지난 12월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관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

차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
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새해복만이 받으세요
희망찬 임의년 2022
성북구 직원 일동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일하다
답을
찾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임의년 2022

성북구 직원 일동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일하다
답을
찾는다

eb 성북

“전남이 중심되는 시대 열겠다”



2022년 새해설계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이 태평양과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자 허브 역할을 할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주요 성과, 새해 도정 방향과 함께 전남의 역할 강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탄소배출 제로,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에너지, 국립의과대학 유치, 우주·데이터·신소재·친환경 선박·미래비행체 모빌리티 등 5대 첨단전략산업을 미래 주요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무사증 입국·국제 항공노선 재개”



2022년 새해설계 구만섭 제주지사 대행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 관광을 회복하기 위해 여행안전구역 시행과 대외 무사증 입국과 제주국 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 제2공항은 항공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2공항 건설의 핵심은 안전과 균형발전이다. 제주공항은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불구하고 슬롯이 시간당 35회를 유지하고 있어 약 2분당 1대가 이·착륙하는 등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의 보완 가능성 검토

Jeju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산업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은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안전구역 시행과 대외 무사증 입국과 제주국 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제주 기점 국제선 항공노선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세기·직항노선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보하겠다.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30%로 상향하면서 대한민국 선도 지역인 제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로 전력공급이 초과하면서 그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수소경제 등을 추진하며 해결하고 있다.

정부 목표인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농업용 고소차, 전동이륜차, 캠핑용 라이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제 연구 개발을 통해 향후 대규모 민간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 제2공항에 대한 견해와 관련 도정 정책은

제2공항 건설의 핵심은 안전과 균형발전이다. 제주공항은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불구하고 슬롯이 시간당 35회를 유지하고 있어 약 2분당 1대가 이·착륙하는 등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의 보완 가능성 검토

제주 제2공항 건설의 핵심은 안전과 균형발전 대규모 ESS 구축 시범사업·수소경제 등 추진 4·3 희생자 보상관리시스템 올 상반기 구축

영역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하반기에야 확인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는 보상금 신청 접수와 지급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또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사전 청구관리를 확인하는 중이다. 상반기 인사 때 도·행정시·읍면동에 총 2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기간



전라남도 JeollaNamdo

● 연말연시와 함께 민선 7기 임기 말도 다가온다. 소감은

민선 7기, 3년 6개월 동안 도민을 만나 보고 경험하며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남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제 전남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 시대의 첫 페이지를 제가 장사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겠다.

● 대기업 산단 등이 있는 전남 동부와 나머지 지역 간 경제 규모의 격차가 크다. 대책은 전남을 광주 근교권·서남권·중남부권·동부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담긴 ‘으뜸전남 미래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어느 한 권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권 발전 혜택이 동부권에 미치고 동부권 발전의 혜택이 서부권에 미쳐 모든 권역이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

● 농어민 공익수당 등 다양한 복지 시책에 비해 거시적인 농촌 발전 전략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농업·농촌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걸맞게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해 이열대 작물 실증과 표준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첨단농업을 선도하겠다. 첨단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정업농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확산에도 힘쓰겠다.

전남의 농업 비전을 담은 미래 전략도 마련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부가

● 새해 도정 방향과 각오는 민선 7기에는 청정 전남·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 등 미래 성장비전을 선보였고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유치, 고품 우주발사체

가치를 만들고 농업 발전을 이끌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 단지’도 지을 계획이다.

● 대선이 치열하다. 여야 후보 공약에 지역 연인과 사업을 반영하는 전략이 있다면

우리가 마련한 ‘으뜸전남 미래전략’ 청사진을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 이념과 여야를 떠나 출마한 대통령 캠프에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당위성을 밝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특히 제3수도, 신해양·친환경 수도 건설은

경남과 뜻을 함께하는 만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1월 중 경남과 공동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겠다.

● 새해 도정 방향과 각오는 민선 7기에는 청정 전남·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 등 미래 성장비전을 선보였고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유치, 고품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미래 첨단 산업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광양만권 산단과 서남권 조선산업 등 전통 주력산업도 산단 대개조,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로 다시 뿔 준비를 마쳤다. 이제 전남이 중심이 될 시기가 왔다. 전남이 태평양과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자 허브 역할을 할 전남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 해상풍력연계 그린수소에너지, 국립의과대학 유치, 우주·데이터·신소재·친환경 선박·미래비행체 모빌리티 등 5대 첨단전략산업이 그 힘이 될 것이다.

남약/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공감·소통·미래가치 창조
희망발전소
2022년 새해에도 최고를 향한 한국섬유산업의 미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이끌어 갑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
Daegu Dyeing Industrial Complex

행복가득한 2022년 되세요

2022년 壬寅年은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 하시고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국가 전액지불 보장 ♥ 우체국 예금·보험

정선우체국
KOREA POST
☎(033) 563-2001, 2005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8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영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송리22-12 (신22-9의 분묘)
2. 분묘개장: 17(무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영묘개장 (화장 후 납골)
5. 안치(봉안)장소: 대한불교경주사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74)
6. 공고기간: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 신고 처: 공고인: 김용덕 (대리인: 김경수 (010-5759-9718))
9. 신고요령: 신고제외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
10.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등 지번 내 누락 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21년 12월 31일
공고인: 김용덕
대리인: 김경수 (010-5759-9718)

생활안정정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 (031) 755-5653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습 결손이 나타나고 공교육을 향한 불신이 팽창하고 있다. 등교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악영향은 학습을 넘어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와 심리 안정, 생활습관 등 성장 전반에까지 미친다.

/ 연합뉴스

아이들 일상 '실종'... 새해엔 교문 활짝 열리나

임인년 새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 정상 교육으로의 회복에 집중해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소풍, 수학여행 같은 비교과 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의 조치는 학교별로 겨울방학 시작 시점에서 종료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지 않는 한 올 새 학기 정상 등교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기 전면등교 방침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밀집도를 연계해 왔다"며 "현재는 비상계획을 실시 중이고 개학할 때 어떨지는 이후(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아직 낮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학교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여러분이 우려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올해 새 학기에는 전면등교, 대면활동 강화 방향으로 학사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습 결손·사회성도 결여
생활습관 한순간 무너져
우려스러운 '코로나 세대'
등교·겨울철 감소세 관련

방학 동안 점중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습 결손이 나타나고, 공교육을 향한 불신이 팽창하고 있다.

등교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악영향은 학습을 넘어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와 심리 안정, 생활습관 등 성장 전반에까지 미친다.

생애주기 중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장기간 집에 갇히다시피 지내면서 일상이 무너진 '코로나 세대'(C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학부모 이모(42)씨는 "게임, 인터넷 노출에 위험한 나이에 유튜브로 연결되는 질 낮은 원격수업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체활동이 크게 줄어드니 체중이 불고 건강상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녀를 둔 정모(38)씨는 "매일 등교, 격일 등교, 원격수업을 번갈아 하니 아이들의 아침 기상 시간도 이에 맞춰 달라진다"며 "학습보다는 생활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하든 자주 바뀌는 수업방식이 이를 방해한

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회가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온 만큼 학교 방역과 운영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의 학교 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학교마다 달라 혼란이 있고 등하교와 점심시간 등에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에 취약한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학생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학교 통지 의무화, 학교방역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교원 감염시 대체인력 투입 등 체계화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며 "방학기간 새 학기 등교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학교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 방역과 교육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서울의 중심 **중구**

덕수궁

정동길

DDP

승례문

남산

청계천

명동성당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대한민국 보물, 중구에 있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환경과
이해관계인을 증시하는 ESG경영 선도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가정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최저임금 시급 9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 행정·안전·질서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오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오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내달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 등이 생긴다.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 비우려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2만4000개 늘려 84만5000개까지로 확대한다.

▲ **지역 공공병원 지원 확대**= 새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1800원씩 받을 수 있다.

● 국방·병무·외교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 새해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1.1% 오르는 것이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비데 신규 설치**=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신규 설치한다. 새해는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병기의 30%만 우선해 전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범 도입**= 육군의 예비역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50명의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해 연 180일 이내(장기)에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방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한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4만7000원에서 올해 6만2000원으로 32% 인상된다.

● 교육·보육·가족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



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라면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 5000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인터넷게임 설타운제 폐지**=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설타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비우려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비우려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커세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 **청년 일자리 도와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예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농림·수산·식품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 **외향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향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새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오는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동정

순천금당남부교회, 시에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 기탁

“어려운 이웃에 작은 보탬 되길”



2022년 시무식 김동일 총남 보령시장은 3일 오전 9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2년 시무식에 참석.



2022년 시무식 장국현 경북 영주시장은 3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2022년도 시무식에 참석.



마현산 총총합 참배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마현산 총총합을 참배하고 신년 업무를 시작한다.



2022년 시무식 김석환 총남 홍성군은 3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2년도 시무식에 참석.



2022년 시무식 문정원 총남 금성군은 3일 오전 9시 30분 군청에서 열리는 2022년 임인년 시무식에 참석.

허석근 소방감, 인천소방본부장 취임



조직 내 신뢰와 전문성 기반,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안전한 인천시’ 구현 인천소방본부장은 3일 제23대 인천소방본부장에 허석근(54·사진) 소방감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

-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김양미 지사장 <1월3일자>

39년째 기부 나눔문화 확산 기여

전남 순천금당남부교회는 최근 저소득층 지원에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순천시에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고창주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발을 보낼 수 있도록 종교계가 앞장서서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탄절 헌금으로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돼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금당남부교회는 최근 저소득층 지원에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순천시에 기탁했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당남부교회는 지난 1981년부터 39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물품(금) 순천시에 기탁하고 해외 의료봉사,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속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목포신항만운영, 전남도지사·관세청장 표창

여중구 대표이사·정창호 팀장, 해상풍력산업 발전 공로

목포신항만운영(주)는 여중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전남도지사 표창과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여 대표이사과 정창호 팀장은 서남권에서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전남 지역 대표 거점항만으로서 전남 해상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해상풍력산업 발전 유공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심종민 프로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심 프로는 목포신항만운영 보세구역의 운영관리 및 세관과의 관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 대표는 “해상풍력발전 지원항만으로의 중추적인 역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여중구(가운데) 대표, 정창호 팀장과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심종민 프로

것”이라며 “새해에도 관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정적 항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권성용기자 ksy@jeonmae.co.kr

정윤경 경기도의원, 청소년 1000명 선정한 ‘청소년희망대상’

경기교육공동체 구현 등 기여 공로

정윤경 경기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대민주·군포1·사진)은 최근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위원장은 청소년희망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정 위원장은 교육현장을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현안 해결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만족하며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행복한 경기



교육공동체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학교현장을 정상화하고 원격수업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청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선제적인 연구활동으로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광주광역시의회, 사랑 나눔 실천 ‘훈훈’

의원 23명 월정수당 25% 자발적 기부

광주광역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원이 최근 월정수당의 25%를 자발적으로 모금, 이 중 1150만원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 나머지 일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마스크 5000장을 구매, 대구시에의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리 이겨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의회는 제 287회 긴급 임시회를 운영, 코로나19 긴급 추가정예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방역체계의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도민 안전한 행복 경북 만드는데 앞장설 것”

이영팔 소방감, 경북도 소방본부장에

경북도는 3일 자료 정부 인사에 따라 제 19대 경북도 소방본부장에 이영팔(54·사진) 소방감(2급)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인 이 본부장은 포항 출신으로 포항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조경학과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5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소방본부 현장대응단장, 서울 강남소방서장,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청 119대응국장을 거쳐 경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신인 이 본부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국



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청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탁월한 현장지휘능력과 풍부한 행정역량을 두루 갖췄고, 대다수 긍정적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경북소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방재책과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포토뉴스



인천 중구,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협의회 위촉식 인천 중구는 최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중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가졌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정선군 사복음체육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원 정선군 사복음체육회는 2일 사복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 나눔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신도회, 사랑의 성금 고성군에 기탁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신도회는 최근 사랑의 성금 500만원을 함명중 강원 고성군수에게 기탁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2021년 정부포상 수여식 양양군, 모범공무원·지역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강원 양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모범공무원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식을 개최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금산군, 인삼산업발전·수출유공자 12명 표창 충남 금산군은 최근 군청에서 인삼분야 활성화에 공헌해 산업발전 및 수출확산 분위기를 조성한 12명에게 인삼산업발전 및 수출유공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Large graphic with a tiger illustration and tex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receive many blessings). Includes the slogan “Do Dream DongDuCheon!” and a message from Dongducheon City for 2022, mentioning the Year of the Tiger and the goal of a prosperous and stable life for citizens.

謹賀
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었던 2021년
 힘든 일과 어려웠던 일들은 털어버리시고
 2022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언론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전국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서울본사 | 인천본사 | 대구본사 | 경기취재본부 | 대전취재본부
 충남취재본부 | 경남취재본부 | 호남취재본부 | 강원취재본부 | 제주취재본부